상무시민공원 에너지파크 22일 첫 삽

한전과 협약 후 4년만…공공조형물·에너지전시관 등 구성

내년 7월 개관 …“상무소각장 복합문화시설과 시너지 기대”

광주 상무시민공원에 들어설 에너지파크 조성사업이 광주시와 한전의 협약 4년 여만에 첫 삽을 뜬다.

광주시는 오는 22일 상무시민공원에서 에너지파크를 착공한다고 15일 밝혔다.

광주시는 부지 제공과 유지 관리를 맡고, 한전은 사업비 80억원 전액을 부담한다. 에너지파크는 에너지 신기술에 대한 전시 및 체험시설, 교육공간 등으로 조성된다. 〈조감도〉

외부 시설물은 11월 준공하고 에너지 전시관은 8월에 착공해 내년 6월 완공할 예정이다. 완공 뒤 한전이 광주시로 시설물을 이관하면 내년 7월 개관해 시민에게 에너지 신기술 등 전시 공간을 선보이게 될 것으로 보인다.

외부 전시물은 기존 시설물을 리모델링한 에너지 분수와 에너지 생산을 시각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 놀이 시설, 태양광 에너지를 물 위에 반사하는 이미지 솔라 트리, 스마트형 보안 등 벤치, 공공 조형물 등 8가지다.

에너지 전시관은 ▲에너지 홀 ▲기후 환경 변화와 신재생 에너지를 소개·체험하는 ‘그린 플래닛’ ▲스마트 시티 등 미래 생활 모습 구현의 ‘스마트 에너지’ ▲미래 에너지 유토피아 사회 포토존 체험코너가 있는 에필로그 등 4개 공간으로 구성된다.

광주시와 한전은 2016년 5월 협약을 체결하고 조성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으나 외부 시설물 일부가 실내 전시관 사업으로 변경되면서 공간 확보에 따른 설계변경 결정과 주민설명회, 한전 이사회 승인, 도시공원 심의 등의 행정 절차를 거쳐 4년 넘는 시간이 걸렸다.

이용섭 시장은 “이번 사업이 완료되면 인근에 있는 광주국악상설공연장과 옛 상무소각장에 조성되고 있는 복합문화시설 등과 함께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에너지파크가 시민들이 보고 즐기는 지역 대표 명소가 되길 바란다”말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내년 공휴일 64일…올해보다 3일 줄어

가장 긴 연휴는 ‘추석’…현충일·광복절·개천절 일요일

내년 실제 공휴일은 64일로 올해보다 사흘 적고, 가장 긴 연휴는 5일간 이어지는 추석 연휴로 나타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5일 내년도 공휴일과 절기 등 정보가 담긴 ‘2021년도(단기 4354년) 월력요항’을 발표했다. 월력요항은 음력 날짜, 24절기, 관공서 공휴일 같은 달력 제작에 필요한 요소가 요약된 자료로 우리나라 달력 제작의 기준이 된다.

내년 달력에 빨간색으로 표기되는 관공서 공휴일은 일요일 52일과 국경일, 설날 등 공휴일 15일을 더해 67일이지만 현충일(6.6), 광복절(8.15), 개천절(10.3)이 일요일과 겹쳐 실제 공휴일 수는 64일로 올해(67일)보다 3일 적다.

또 주 5일제 근무자가 쉬는 휴일 수는 공휴일(64일)에 토요일 52일을 더해 116일이 되지만, 설 연휴 중 하루(2월 13일), 한글날(10월 9일), 기독탄생일(12월 25일)이 토요일과 겹쳐 총 113일이 된다. 이 역시 올해보다 이틀이 적다.

가장 긴 연휴는 추석(9월 21일·화)으로 토·일요일에 이어 5일간 쉴 수 있고, 설날(2월 12일·금) 연휴는 목요일부터 일요일까지 4일간 이어진다. 이밖에 1월 1일(금)과 3·1절(월)이 주말과 이어져 3일 연휴가 된다. 전통명절은 정월대보름은 2월 26일, 단오 6월 14일, 칠석 8월 14일, 한식 4월 5일, 초복 7월 11일, 중복 7월 21일, 말복 8월 10일 등이다.

2021년 월력요항에 관해 자세한 사항은 관보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www.msit.go.kr), 한국천문연구원홈페이지(www.kasi.re.kr)에서 볼 수 있다. /연합뉴스

해외 수출시장 개척…전남도, ‘신 에이전트’ 51명 선발

세계 22개국…연말 오프라인 수출상담회 초청 예정

전남도는 북미, 남미, 동아시아 등 세계 22개국에서 51명의 ‘신 에이전트(바이어)’를 발굴해 전남 농수산물의 세계 판매에 박차를 기할 방침이다.

15일 전남도에 따르면 ‘신 에이전트’는 해외에서 농수산식품을 수입해 유통·판매한 해외동포들로, 해외 신규시장 개척은 물론 도내 수출기업에 대한 컨설팅으로 수출 역량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전남도는 지난 3월 ‘코로나19’ 장기화로 해외 직접 마케팅이 어렵다고 진단하고, ‘신 에이전트’를 활용해 농수산식품 마케팅 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전남도는 구매력 있는 바이어를 확보해 ‘신 에이전트’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난 3월 세계한인무역협회 사무국과 업무 협의, 세계한인무역협회 해외지회를 중심으로 ‘신 에이전트’ 발굴계획을 수립하고 모집 절차를 진행했다.

또 잠재력 있는 바이어 발굴과 신속한 모집을 위해 당초 세계한인무역협회 회원만을 대상으로 했던 지원 자격을 확대해 전남도 수출상담회에 참여했던 해외동포 바이어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지역별로는 ▲북미 11명(미국 9, 캐나다 2) ▲남미 2명(에콰도르 1, 브라질 1), ▲동아시아 7명(중국 1, 일본 4, 대만 1, 홍콩 1) ▲동남아시아 17명(태국 3, 인도 3, 말레이시아 2, 미얀마 1, 베트남 3, 싱가포르 1, 인도네시아 4) ▲유럽 6명(독일 1, 영국 3, 네덜란드 1, 불가리아 1) ▲오세아니아 7명(호주 5, 뉴질랜드 2) ▲서아시아 1명(터키 1) 등이다.

전남도는 ‘코로나19’로 수출 확대가 시급한 현 상황을 감안, 신 에이전트를 활용한 온라인 화상 수출상담회를 오는 7월부터 우선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참여 희망 기업을 모집 중이며, 전남도수출정보망(www.jexport.or.kr)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연말에는 신 에이전트를 국내로 초청해 오프라인 수출상담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이상진 전남도 국제협력관은 “수출선 다변화를 위해 앞으로 매년 50명씩 해외 각국의 구매력 있는 바이어를 추가로 발굴할 계획”이라며 “신 에이전트를 통해 도내 우수 농수산식품을 해외에 적극 홍보하고 다양한 국가에 수출기반이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北, 6·15공동선언 20주년에 “서릿발치는 보복” 압박

남한 정부가 탈북자 대북전단 살포 묵인 비난도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을 맞은 15일 북한 관영매체들은 관련 언급 없이 “서릿발치는 보복 행동은 계속될 것”이라며 남측을 압박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끝장을 볼 때까지 연속적인 행동으로 보복할 것이다’ 제목의 정세론해설을 실어 구체적인 대남 군사행동에 나설 것임을 거듭 시사했다. 신문은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지난 13일 담화에서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철거를 위협한 것을 되풀이하며 “이미 천명한 대로 쓸모없는 북남공동연락사무소가 형체도 없이 무너지고 그다음 대적행동의 행사권은 우리 군대에 위임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무적의 혁명강군은 격앙될 대로 격앙된 우리 인민의 원한을 풀어줄 단호한 행동을 개시할 것”이라며 군사적 도발이 임박했음을 예고했다. 또 “최고존엄을 함부로 건드리는 자들은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인민들과 인민군 장병들의 드팀 없는 의지”라며 “이 거세찬 분노를 반영하여 세운 보복 계획들은 우리의 국론으로 확고히 굳어졌다”고 강조했다.

2018년 4·27 판문점 선언 이후 2년여 시간이 흐르는 동안 남한 정부가 탈북자들의 대북전단 살포를 묵인했다는 비난도 이어갔다. 신문은 “남조선 당국의 은폐된 적대시 정책과 무맥무능한 처사로 하여 완전히 풍비박산 나고 최악의 긴장 상태가 조성된 것이 오늘의 북남관계이고 조선반도”라며 “악취밖에 나지 않는 오물들을 말끔히 청소할 의지도, 그럴만한 능력도 없는 남조선 당국이 가련하기 그지없다”고 비아냥댔다.

북한은 이날 관영매체에도, 대외선전매체에도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에 대한 기사를 전혀 싣지 않고 침묵했다.

지난해 6·15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가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에 연대사를 보내 평화와 번영, 통일의 전성기를 함께 열자고 호소했던 것과 대조적이다.

앞서 지난 8일 선전매체 ‘조선의오늘’은 통일부의 6·15공동선언 20주년 행사를 ‘철면피한 광대극’으로 평가하면서 “기념행사나 벌인다고 해서 북남관계를 파탄에 몰아넣고 조선반도 정세악화를 초래한 범죄 책임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여정 제1부부장은 지난 4일 담화에서 대북전단 살포를 가리켜 “얼마 있지 않아 6·15 20돌을 맞게 되는 마당에 우리의 면전에서 꺼리낌 없이 자행되는 이런 악의에 찬 행위들”이라고 비난하면서 6·15를 언급했다. /연합뉴스

26일 이재용 기소 권고 여부 최종 결론

검찰 수사심의위

불법 경영권 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기소할지 여부에 대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최종 의견이 오는 26일 정해진다.

15일 법조계와 삼성 측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이날 수사팀 주임 검사와 삼성 측에 수사심의위원회 심의기일을 26일로 정해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은 관련 지침에 따라 법조계와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문화·예술계 등 각계 전문가 150명 중 추첨을 통해 15명의 위원을 선정해 사건을 심의할 현안 위원회를 구성 중이다. 위원들은 심의 기일에 검찰과 삼성 측 변호인단이 제출한 A4 용지 30쪽 이내의 의견서를 검토해 기소 권고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결론은 심의기일 당일에 나올 가능성이 크다.

수사심의위의 기소 여부에 대한 의견은 권고 사항일 뿐 검찰이 반드시 따라야 할 의무는 없다. 하지만 지금까지 열린 8차례 수사심의위의 권고를 검찰이 모두 받아들였다는 점에서 권고를 따르지 않을 경우 검찰에 부담이 될 것이라는 관측도 많다.

검찰은 이미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까지 청구한 만큼 수사심의위 권고 판단과 무관하게 기소 쪽에 힘을 싣지 않겠느냐는 것이 검찰 안팎의 분위기다. 다만 수사심의위가 기소 권고를 해도 수사기록 정리, 공소장 작성 등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해 이달 중 기소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수사심의위원회 위원장인 양창수 전 대법관의 심의 회피 여부도 관심사다. 양 위원장의 처남은 권오정(63) 삼성서울병원장이다. 양 위원장이 과거 이 부회장을 두둔하는 듯한 신문 칼럼을 쓴 사실도 최근 주목을 받아 논란이 됐다. /연합뉴스

사원모집공고

당사는 도시디벨로퍼 자산개발(주)로써 사원을 모집합니다.

모집내용

모집부문	고용형태	우 대 조 건
사무직 (경리) 여 (나이 제한 없음)	정규직	컴퓨터 (한글, 엑셀, 파워포인트) 가능자

임금조건
근로기준법 준수(면담 후 결정)

모집기간
2020. 6. 11. ~ 17.(7일간)

제 출 처
SKC자산개발주식회사
광주 남구 노대동 853번지(농협건물 6층, 601호)
(본인 방문 접수 : 이력서, 자기소개서 지참)

연 락 처
법무실 : 010-8602-0001

침술경력50년
금침을 한번만 맞으면
노후한 몸속 기관이 살아나
활기가 넘치고 젊어집니다.
고혈압, 당뇨병, 정력감퇴
중풍마비, 각종 암, 불치통증
단 한번의 치료로
모든 병을 고칩니다.
010-8491-2060

판 결 공 시

• 제1심 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 2019고합549
(2019전고72,2020고합8)
강제추행 등
• 피고인 : 정상철

위 피고인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기소되었으나 증거없음을 이유로 일부무죄의 판결이 선고, 확정되었음을 공시함.

2020년 6월 1일
광주지방법원 제12형사부(합의)
판사 노 재 호

분할합병공고
(채권자이의 및 주권제출공고)

주식회사 한경〈이하“갑”이라함.〉와 주식회사 이건전력〈이하“을”이라함〉은 각2020년06월12일 임시주주총회 결의로 “갑”의 그 재산의(영업) 일부(전기공사업 부문)를 분할하여 그 분할된 부분과 “을”이 합병하고 “갑”은 존속하기로 하였으며, 상법530조9 제2항에 의거“갑”의 분할되는 재산, 부채등“갑”의 전기공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는“을”이 승계하기로 결의하였기에 이 분할합병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 공고 게재일 익일부터 1개월 이내에 관계회사에 이의를 제출하고 주주는 주권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의가 없으면 분할합병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함을 공고 및 최고합니다.

2020년 6월 16일
—아 래—
1. 분할 합병 대상 : 전기공사업(광주-00041호)
2. (갑)상 호 : **주식회사 한 경**
대표이사 : 김광임
주 소 :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학포로 2713
3. (을)상 호 : **주식회사 이건전력**
사내이사 : 이 지 성
주 소 : 전라남도 영암군 군서면 왕인로 499

합병 및 주권제출 공고

주식회사 위라포시즌컴퍼니(“갑”)와 오성에이앤엠 주식회사(‘을”)는 2020년 6월 12일 각 주주총회의 결의로 “갑”은 “을”을 합병하여 그 권리의무를 승계하고 “을”은 해산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이 합병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본 공고 제재일 익일부터 1개월내에 관계회사에 이의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구주권을 소지하고 있는 주주는 본 공고 게재일 익일부터 1개월내에 구주권을 관계회사에 제출하시기 바라와 이에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16일
“갑” **주식회사 위라포시즌컴퍼니**
순천시 해룡면 신성리 907-2
대표이사 : 장 원 준
“을” **오성에이앤엠 주식회사**
순천시 해룡면 호두리 율촌제1지방산업단지 3블럭
사내이사 : 강 영 신

합병 및 주권제출 공고

주식회사 위라포시즌컴퍼니(“갑”)와 오성에이앤엠 주식회사(‘을”)는 2020년 6월 12일 각 주주총회의 결의로 “갑”은 “을”을 합병하여 그 권리의무를 승계하고 “을”은 해산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이 합병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본 공고 제재일 익일부터 1개월내에 관계회사에 이의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구주권을 소지하고 있는 주주는 본 공고 게재일 익일부터 1개월내에 구주권을 관계회사에 제출하시기 바라와 이에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16일
“갑” **주식회사 위라포시즌컴퍼니**
순천시 해룡면 신성리 907-2
대표이사 : 장 원 준
“을” **오성에이앤엠 주식회사**
순천시 해룡면 호두리 율촌제1지방산업단지 3블럭
사내이사 : 강 영 신

분묘개장공고 (2차)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분묘를 개장코자 하오니 설치자(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기간 내 신고 및 개장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기간 내 신고가 없을 경우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임의 개장할 계획임을 공고합니다.
1. **분묘위치** : 전남 여수시 율촌면 봉전리 138-4번지
2. **분묘기수** : 1기
3. **개장사유** : 건축(건물)시공
4. **개장방법**
• 유연분묘 : 연고자와 합의 후 개장처리
• 무연분묘 :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법령에 의거 임의개장
5. **안치장소** : 여수시립영락공원 납골당
(여수시 소라면 봉두리 산190)
6. **공고기간** : 2020년5월07일부터 ~ 2020년8월07일
7. **안치기간** : 봉안 후 10년
8. **신 고 처** : 여수시 시전4길 8-14 최복만(010-6605-3733)
9. **신고방법** : 매장자와 연고자 간의 연고권을 확인할 수 있는 호적, 제적 등본, 족보, 묘지신고서 등을 구비하여 상기 신고처에 신고
10. **기타사항** : 분묘개장공고 이후 상기 분묘 이외에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된 분묘 및 추가로 발견되는 분묘의 개장공고는 별도 개장 공고 없이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2020년 6월 16일
상기와 같이 공고합니다.
위 공고인 여수시 시전4길 8-14 최복만 (010-6605-3733)

분묘개장공고 (2차)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께서는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공고기일 내에 신고 또는 개장하지 않은 분묘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관계법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공고자 임의로 개장할 것을 공고합니다.
1. **분묘위치 및 기수** : 전남 화순군 한천면 한계리 407 - 1기
전남 화순군 한천면 한계리 393 - 1기
2. **개장사유** : 재산권 행사
3. **개장방법**
• 유연분묘 : 연고자와 합의후 개장처리
• 무연분묘 : 공고기간 경과후 관계법령에 따라 임의개장
4.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5. **안치장소** : 전남 화순군 한천면 산62번지
6. **안치기간** : 5년
7. **신 고 처** : 구홍우(010-3624-6004)
8. **신고시 구비서류** : 연고자 임을 입증하는 호적. 제적등본, 묘지신고서 등
9. **기타사항** : 상기 지번내에 식별이 불분명하게 누락되어 추가 별관된 분묘에 대해서도 이 공고로 갈음함.

2020년 6월 16일
공고인 구 홍 우

상속한정승인공고

• **피상속인** : 망 문영준(390113-XXXXXXX)
• **최후주소** : 광주 광산구 풍영로230번안길 48 (장덕동)

피상속인 망 문영준의 상속인은 위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하여 상속한정승인을 광주가정법원 2020느단760호로 신청하여 2020년 6월 9일 심판 인용되었으므로 피상속인에 대한 일반채권자 및 수증자는 공고일로부터 신고기간내에 채권신고를 하시기 바라며 위 기간이 지나면 청산에서 제외됩니다.

2020년 6월 16일
• **상속인** : 문상철(630415-XXXXXXX)
광주 서구 하남대로710번길 20
502동 203호(동천동, 우미린아파트)
• **신고기간** : 2020. 6. 16. ~ 2020. 8. 25.
• **채권신고처** : 상속인 문상철의 주소

상속한정승인공고

• **피상속인** : 망 장용근(330115-XXXXXXX)
• **최후주소** : 광주 광산구 삼도동 32

피상속인 망 장용근의 상속인은 위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하여 상속한정승인을 광주가정법원 2020느단738호로 신청하여 2020년 6월 11일 심판 인용되었으므로 피상속인에 대한 일반채권자 및 수증자는 공고일로부터 신고기간내에 채권신고를 하시기 바라며 위 기간이 지나면 청산에서 제외됩니다.

2020년 6월 16일
• **상속인** : 1. 장치금(600912-XXXXXXX)
전북 고창군 대산면 사거2길 5
2. 장성준(880616-XXXXXXX)
대구 북구 산격로 28-1(산격동)
3. 장성희(910624-XXXXXXX)
대구 북구 산격로 28-1(산격동)
4. 장순남(611212-XXXXXXX)
광주 광산구 어등대로647번길 43, 101동 502호 (소촌동, 대화아파트)
5. 장치웰(640907-XXXXXXX)
광주 광산구 평동로1101번길 40, 104동 601호 (송정동, 광주송정역모아엘가아파트)
6. 장치균(680909-XXXXXXX)
광주 광산구 어등대로647번길 43, 101동 502호 (소촌동, 대화아파트)
• **신고기간** : 2020. 6. 16 ~ 2020. 8. 25.
• **채권신고장소** : 상속인 1. 장치금의 주소

ABC협회인증
호남 최대
발행 부수
독자와 함께 걸어온 길 68년
광주일보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예향
광고문의 (062)227-9600
신문구독 (062)220-0551
예향구독 (062)220-0550

산행안내

6월17일(수)
▲**광주청록산악회** 6월17일(수) 경남 거창 우두산-의상봉 산행, 백운로타리타이어뱅크앞 07:30, 교직원공제회관 07:40, 예술회관후문 07:50, 각화동 현대물류앞 08:00 ※다음카페 광주청록산악회 ☎ 010 8612 4504, 010 8612 3177

6월20일(토)
▲**광주금당산악회** 6월20일(토) 통영 천혜의비경 비진도 외산 선유봉, 봉선동롯데마트앞 06:10, 진월동식자재마트앞 06:20, 염주체육관 06:30, 한국병원앞 06:40, 문예회관정문 06:50, 비엔날레주차장입구 07:00 ※ 다음카페 광주금당산악회 ☎ 010 6294 2678

6월24일(수)
▲**광주청록산악회** 6월24일(수) 전북 임실 오봉산-국사봉 산행, 백운로타리타이어뱅크앞 07:30, 교직원공제회관 07:40, 예술회관후문 07:50, 각화동 현대물류앞 08:00 ※다음카페 광주청록산악회 ☎ 010 8612 4504, 010 8612 3177